26) 카바넬 – 비너스 / 마네 – 올랭피아

비너스의 탄생 (신화)

마네 – 현실의 여자(창녀). 모던라이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27)

모두 여성 누드.

르네상스 이후로 여성 누드 많이 그림 (특히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영국 제외(청도교 때문에), 북유럽도 제외)

비너스 – 예술적. 외설적이지 않다.

여신, 요정 그림. 음모가 없다. (실제 사람이 아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아 더 누드를 잘 볼 수 있다..?

올랭피아(사창가의 여자가 많이 가진 이름) – 소설에 나오는 창녀.

눈을 마주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

당시 비평가 – 너무나 불결하다. 마네의 올랭피아 볼 수 없다.

흑인노예도 같이 그림 (사실성 추구)

손으로 음모를 가림. (보는 사람은 더 눈길이 감)

클림턴 – 여성의 음모를 그린다.

사실성을 보여주는 방면으로 나아간다. (올랭피아와 클림턴 두 그림)

회화의 조건 – 평면성과 물질성 ( 회화는 회화다워야 하고, 조각은 조각다워야 한다.)

비너스 – 바다에서 태어난 비너스라는 것을 강조 위해 붓터치 숨김.

근대미술 – 있는 그대로. 회화의 조건(평평한 표면, 물감, 붓터치)

르네상스 - 회화는 자연을 비추는 거울. 자연에 부속.

🡪회화의 조건들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원근법, 소실점 등을 사용하여 회화인 것을 잊어먹게 함..?

모더니즘 미술 – 회화는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회화의 조건을 내보임(평평한 표면 강조, 붓질 드러냄(거칠게..?))

28)

마네 – 문학적 이야기 배제. 미술을 위한 미술, 회화를 위한 회화.

색체 형태 구성 조화 추구. 자연, 문학, 조각으로부터 독립됨. 장르의 순수성으로 나아가게 됨.

나폴레옹 – 초상화, 나폴레옹 전투 설명 기능.

29)

일본 목판화 – 선만 있다. 색채도 순수. 명암, 음영 없이도 아름답게 표현.

벨라스케스 - 17c 스페인 바로크 미술에 영향 받게 됨. –> 평면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었다.

~~현대미술의 발달과정~~

<1> 감미롭게 아름답고 요정 같은 몸

<2> 중성적인 몸. 기하학. 원통형. 거친 붓터치.

<3> 강렬한 색채.

<4> 기하학.

자연을 보고 재현 x, 화가의 감정 개념을 표현하는 쪽으로 발전.

32) 모네 – 인상, 해돋이

해돋이 인상. 너무 즉흥적이고 찰나적으로 그림. 눈에 보이는 ‘인상’ 포착.

본질적인 색채 형태 무시. 눈에 보이는 순간의 인상 포착.

명암법 원근법 버리게 됨. ->회화는 평평한 표면에 거친 붓터치.

빛을 쫓아서 한 순간의 인상을 보여준다-🡪인상주의!!

르네상스 미술 - 음영 넣음. 본질을 보여주려 함. 본질적인 형태, 색채 추구.

1874년 인상파 전시회가 열린 나다르의 사진관 – 인상주의의 시작!

와세 – 명암법 사용. 3차원의 입체감->전체적으로 갈색톤. 그림이 전반적으로 축축함. 어두침침함.

쿠르베 이후로 사실주의 화풍->화가들이 밖에 나가서 그리기 시작.

청명한 날씨의 ‘빛’을 담으려 함.->순수한 색채 추구->명암법 자연스레 버림.

명암법 대신 인상주의부터 ‘냉온 대비법’ 사용. 차갑고 따뜻함.

사진의 발달로 정교하게 그리는 것 별 의미 없어짐. (인상주의 발달 배경의 큰 요인)

화가의 눈, 경험한 것을 그린다.

사진기 발달로 사람들에게 ‘빛’의 중요성 인식. 또한 사진으로 인해 정교한 묘사보다는 화가의 경험, 주관성, 인상을 그리는 방향으로 발전.

대상이 뭔지 모를만큼 대상이 흐트러짐.

쿠르베 – 사회적 메시지 / 마네 – 미학적 가치 / 모네 – 인상주의 작가 (자연주의+화가의 주관성)

33)

앵그르 – 감미로운 여인의 모습. 본질적인 음영 보여줌.

르누아르 (햇빛 속의 토르소) – 음영 존재. 나무 숲 사이에 있는 여인의 누드. 냉온 대비법. 반사광. 그 순간에 포착되는 빛을 보여줌.

34)

햇빛 속의 토르소 – 붓터치 화사. 냉온 대비법. 그 순간의 빛 포착 노력.

수욕도 – 위의 작품과 10여년 차이. 1880년대 인상주의 와해되는 분위기. 이 것에 회의를 느끼며 본질적인 질서 법칙 찾아야 한다고 느낌. 구성 질서 법칙의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됨.

음영 보여주며, 견고한 형태감각으로 바뀜.

모더니즘 미술 – 구성/질서

36)

세잔느 – 목을 맨 사람의 집 : 모네의 눈은 훌륭하다. 화가는 눈과 뇌를 가져야 한다.

눈이 좇는 인상을 따라가 형태가 흐트러진다. 형태의 문제를 다시 생각.

고갱 – 색채 문제 다시 생각.

반 고흐 – 감정 표현 주장

위의 셋 모두 인상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활동하다가 단순히 눈으로만 좇는 것에 반대.

후기 인상주의!!

모네 – 인상, 해돋이

37)

원작 올랭피아 – 고객(관람자)을 바라본다.

개작 올랭피아(세잔느) – 올랭피아를 바라보는 관찰자(세잔느)가 나와있다. 일종의 자화상.

예술가 개인의 욕망. 예술가가 우위에 있다. 19c에는 미술가가 창조, 하나님, 우위의 위치에 있다.

우리의 눈이 올랭피아로 금방 가는 것이 아니고, 캔버스 표면에 우리 눈이 멈춘다(캔버스의 표면을 드러내면서 더 강조한다.)

캔버스가 세상과 분리된 세상과 독립된 것 ->평면성을 보여주는 방향.

38)

세잔느 – 현대 미술의 아버지. 화면은 구조적 질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내적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견고함’을 찾아야 한다. 검정 윤곽선 써서 남자의 정확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하고 거리가 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원근법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아 평면적으로 보임. 물감과 붓질 형태 구조에 관심 가짐. 평면성과 사실성 견고한 형태 질서를 되찾자. 모든 사물은 원뿔 원통 원구의 기하학적 입방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의 붓터치->공기의 진동을 보여줌. 이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밀도 있는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간도 하나의 형태이다.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형태. 검정 윤곽선 중간중간 끊어져 있다. 공간과 형태는 서로 상호 관계를 이룬다. 서로 상호 침투하고 서로 관계를 이룬다. 기하학적 입방체로 견고한 구성을 보여주려 함. 내적 질서를 보여주려 한다. 조화로서 나아가려 한다.

남자만이 주인공이 아니다.

회화는 독자적인 법칙 질서를 가진 독립된 세계(내적 질서와 조화)

마네는 창시자. 세잔느는 아버지. 회화는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세계라는 것을 확고히 보여줌.

부그로 – 떠나가는 전통을 붙든 마지막 사람. 주인공 사람 나머지는 배경.